

프로그램 진행개요

해설 주제	태백산과 함께하는 거점 산행		
해설 소재	태백산과 함께하는 문화재이야기		
해설 대상	전체	해설지점	태백산비석앞
해설 재료	루페, 응급비상약	소요시간(')	2시간
운영자	자연환경해설사 장호영		

해설 시나리오

<p>“안내판 앞”</p> <p>안녕하십니까?</p> <p>태백산 국립공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p> <p>저는 오늘 여러분을 안내하게 될 자연환경해설 장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p> <p>-탐방에 앞서 태백산 국립공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 하겠습니다.</p> <p>국립공원이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곳 그리고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으로써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곳입니다.</p> <p>우리나라에는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태백산국립공원은 2016년 8월22일 에 스물두번째로 지정되었습니다.</p> <p>태백산국립공원에서는 삼한시대부터 약 2000년간 하늘에 제를 지낸 천제단 살아천년 죽어천년을 산다는 4000그루의 주목, 한강, 낙동강,오십천이 발원하는곳 국내최대의 금대봉,만항재,야생화군락지 열목어가 뛰어노는 아름다운 백천계곡등 다양하고 뛰어난 생태경관자원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p> <p>지금부터 저와 함께 탐방하시겠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분이 계시면</p>
--

제게 비상약이 준비되어있으니 저에게 말씀해주시고 출발 하겠습니다.

“태백산 비석앞 ”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와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뒷산에 올라 이산이 어디에서 뻗어 왔을까하고 산줄기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마치 운무속에 하늘을 닿을듯 솟아 천제단을 머리에 이고 있는 둥그런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생긴산에 도달하니 바로 태백산입니다.

- 자 우리 조상들이 아무산이나 태백산이란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높이로 따지면 1567m로 지리산 , 설악산이 더높고 경치로 따지면 금강산보다 못하는데 맛맛하고 둥그스름한 산 특징이 없는산에 우리겨레의 근본산인 태백산이라는 이름을 부여 했겠습니까.

태초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환웅천왕님의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신시를 열어 우리민족의 터전을 잡았다는 단군신화 그 단군신화의 최초의 지명으로 등장하는 산이 태백산이다 그때 그곳이 어느산인가? 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 그 지명을 사용하는곳은 태백산뿐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온 태백산을 하늘로 통하는 길이라 여겼고 하늘에 제를 올리는 풍습을 만들었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서기 138년 신라 7대 일성왕 5년 10월에 왕이 친히 태백산에 올라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으며 서기 300년 기림왕 3년 3월에 왕이 우두루(춘천)에 이르러 남쪽에 있는 태백산을 향해 망제를 올리자 낙랑과 대방이 스스로 행복해왔다고 전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때마다 태백산에 올라 하늘에 제를 올리는 풍습과 망제가 이어져 왔고오늘날도 계속이어지고 있으며 매년10월 3일(개천절)에 천제가 봉행되는 곳입니다.

“태백산 도감도앞 ”

태백산은 문헌에 두령이 700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서계시는 북쪽으로 두타산.오대산이 이어지고 동쪽으로는 동해바다 서쪽으로는 소백산에 닿아있고 남쪽으로는 청량산.일월산까지 이어 그사이 수많은 봉우리와 내를 거느린 산입니다 (사진 설명)

- 그럼 태백산을 중심으로한 인근 유명사찰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보 제 18호 영주 부석사의 본전인 무량수전이 있는 영주부석사의 현판이 태백산 부석사로 되어있고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있는 정선 정암사도 현판은 태백산 정암사이고 조선시대사고가 있고 안거장소로 유명한 경북 봉화 각화사도 태백산 각화사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월 단종대왕능 사찰인 보덕사도 태백산보덕사 삼척의 고찰인 천은사.영은사도 태백산 천은사 태백산 영은사로 현판이 되어있습니다.

“천왕단에서 ”

천왕단 비석에 있는 한배검은 크고 밝은신이라하여 국조 단군님을 칭하는 것입니다 이 천제단은 국가민속문화재 228호로 부소단,천왕당,장군단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天(하늘) 地(땅) 人(사람)에 제를지낸 장소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소단에서는 땅에 이곳 천왕단에서는 하늘에 건너편 장군단에서는 조상에 대한 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고조선을 거쳐 삼한, 삼국시대에 이곳 천제단에서 천제를 봉행했다하니 천제는 우리 겨레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진 거룩한 제례인 것입니다.

지금도 등산객 많은 무격인이 이곳 천제단에서 기도하고 뜻있는 일을 하고자 할때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태백산은 삼강의 발원이 되는곳입니다.

한강,낙동강,오십천의 발원이 되는곳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곳에서 11시방향에 풍차도는곳을 보십시오 거기 우측에 있는 봉우리가 금대봉입니다.

이금대봉 북쪽 기슭의 검룡소에서 솟는물은 한강 1300리를 흐르고 남쪽 기슭용소에서 솟는물이 황지에서 솟는물과 함께 낙동강 1300리의 근원이 됩니다.

3시 방향을 보시면 높은 봉우리가 보입니다.

저 봉오리는 백병산으로 북쪽흰늪에서나 솟아나오는 물이 동해 오십천의 근원이되니 우리날 동해 남해 서해로 흘러가는 3강의 발원지를 가지고 있는산은 태백산이 유일합니다 (1861년 동여지도)

-태백산은 삼강의 발원지도 부족한지 태백산 영봉을 중심으로 30리 내외에 해발 700~1500mm산기슭에 무려 60개의 못과 늪이 있어 기이하다못해 신비롭습니다

(청원사못 사진)

-또한 태백산은 100년이상된 생천사천 주목이 4000그루가 살아있어 사시사철 멋진

풍광을 보여주는 산입니다

역사에 최초로 등장한 산 3강의 발원지가 있는산 고조선으로서 하늘에 제를 지낸 천제단이 있는산 4000그루의 주목이 어울어진산 지금도 많은 무격인이 기원을하는 명산 이런산이 태백산입니다.

태백산은 토산으로 초목이 잘자라고 만물이 성장하기 좋은산으로 산이부드러워 접근이 좋은산입니다.

멀리서 보면 태백산봉우리는 볼록한것이 여인의 젖가슴처럼 생겼으니 바로 어머니의 젖가슴 이니 모산입니다

외쪽 젖가슴에서는 곡창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으로 흘러보내고 오른쪽 젖가슴에는 한강으로 젖줄을 흘러 보내고 오라보면 700리 두렁에 만산이 조아리고 백천이 굽이쳐 흐르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태백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명을 통해 왜 태백산이 소중한 산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은 우리가 정말 아끼고 보호하여 우리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행복한 산행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해설사 장호영였습니다.

민족의 영산, 태백산에 오르다.

활동장소	태백산국립공원 태백산
소요시간	220분
참가대상	중·장년층
참가인원	20명
운영자	자연환경해설사 임여영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한의 명산이며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의 의미와 태백산을 대표하는 ‘깃대종인 주목’과 ‘태백산 명소’를 알리고자 한다. • 다시 찾고 싶은 고향과도 같은 태백산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도 물려주자는 생각을 일깨워 준다.
------	--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강 하천지도, 이무기 인형, 명함 유인물, 이름표, 필기구, 생각액자, 아크릴구, 드라이플라워, 아로마향료, 작은 천, 고리 등
-----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물 관찰 및 체험 시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 • 지정된 탐방로만으로 출입하기
------	--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프로그램 일정 소개 - 대상자 인원 파악 및 확인 - 프로그램 운영 목적과 필요성 및 운영진 소개 - 안전체조 및 주의사항 안내 	5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백산국립공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백산국립공원의 현황 • 태백산 자연자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백산 유래 및 자연자원 소개 • 태백산 용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늘아래 첫물, 용정 	70분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백산 천제단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백산에 올라 삶을 돌아보다. 	5분

시나리오

태백산국립공원 소개

산소도시 태백산 국립공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산소 같은 여자 태백산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임여영 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다행히 오늘 날씨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듯 무척 화창 합니다.오늘 여러분은 저와 함께 태백산을 탐방하시
게 될 텐데요, 이곳은 태백산 국립공원에 속하는 태백산이며 1,567m입니다.
오늘 이곳 태백에서 태백산의 맑은 공기와 기를 맘껏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
습니다.

태백산국립공원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산줄기인 백두대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혹시 국립공원이란 어떠한 곳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국립공원이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살아있는 자연 생태계와 문화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해서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관리 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우리 태백산 국립공원은 2016년 8월22일에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국립공원에서는 모두가 하나 되어 탐방객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
니다. 자 그럼 이제 몸의 근육을 살짝 풀어주고 출발할건데요, 탐방하실 때에
는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실 경우 다치거나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저에게 간단한 구급품이 준비되어있으니 필요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백산 자연자원 소개

자 그럼 태백산 탐방을 천천히 시작 하겠습니다.

우선 태백산이 가지고 있는 뜻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태백산은 크게 밝은 산
이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순 우리말은 “한백뢰” 라고도 하며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한반도 생명의 젖줄인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이기도한 태백산은 한반도 이
남의 모든 산의 어머니와도 같은 산이자 민족의 영산이며 하늘과 맞닿을듯
한 태백산에는 한민족이 오랜 염원으로 쌓아올린 천제단이 있는데요, 이곳
은 1,500여년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냈으며, 가장 높은 봉우리인 장군봉에
장군단을, 영봉에 천왕단을, 그리고 천왕단 아래에 부소단을 쌓아서 이 세
개의 제단을 합쳐 천제단이라 하며, 1991년 10월23일 중요민속 제22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천제단은 잠시후 정상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 먼저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제단에는 각각의 제를 올리는 목적이 있는데요, 천왕단에서는 하늘에 제사를 지냈고, 장군단에서는 사람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부소단에서는 땅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이렇듯, 태백산은 민족의 영산으로 지금도 매년 10월3일 개천절에는 오시에 해당하는 오전 11시와 오후 1시 사이에 국태민안(國泰民安)이라하여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평안함을 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우리 농민들의 한해 농사가 잘 되도록 비가 때를 맞추어 오고 바람이 고르게 불어 곡식이 잘 되게 해달라는 “우순풍조”의 염원을 담아 천제를 지냅니다.

저도 그 천제를 직접 여러 번 본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느낌은 이루 말할수 없을 만큼 모든 이들의 소망과 희망의 간절함이 하나 됨을 느꼈습니다. 매년 10월 3일이면 고등학교 3학년을 둔 부모들이라면 통상 대입합격을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안고 태백산 천제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실분이 계실수도 있겠죠?

그리고 천제를 올리는 태백산 아래에는 소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소도”란 삼한시대의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신성스러운 장소를 뜻하는 말로 죄를 지은 죄인이 이곳 소도로 숨어 들어온 이후엔 그 누구도 다시 이 죄인을 잡으려 들어올수 없을 만큼 그 권한이 천부적인 것이며 침범할 수 없음을 뜻하는“신성불가침”이란 의미의 명칭에서 유래합니다. 이곳 태백시의 소도 또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른 쪽에 있는 나무를 보시면 지금은 겨울이라서 꽃이 피어있지는 않지만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이되면 꽃을 볼 수 있는 함박꽃나무입니다. 함박꽃은 목련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목련은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피고, 함박꽃은 잎이 나온후 꽃이 펴요. 꽃은 밑으로 머리를 향하여 피기 때문에 수줍음 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산목련 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우리 태백시의 시화이기도 합니다. 몇 달 후면 이 하얀 함박눈 같은 순백의 꽃을 볼 수 있겠죠? 또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태백산은 백두대간의 핵심구역이며, 동·식물의 가교역할 또한 특특히 하는 자연생태계의 보물창고입니다. 그 보물중의 하나가 천연기념물 이며 살아 천년 죽어 천년 간다는 주목이랍니다. 주목은 저희 태백산을 대표하는 깃대종이기도 합니다.

주목은 느리게 성장하는 나무이지만 100년이 지나서부터는 빠른 성장을 시작하는데요,

봄철에는 녹색 암꽃과 갈색 수꽃이피고, 가을에는 붉은 열매가 컵 모양으로

달리는 주목이 태백산 곳곳에 4,500여 그루가 분포되어 있지만, 특히나 장군봉과 천제단 주변에는 500년 된 주목의 군락지가 사시사철 푸른빛을 띠고 붉은 속살을 드러내며 위풍당당하게 태백산의 상징이 되고 있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주목이 어떻게 이곳 태백산에서 지금껏 곳곳하게 남아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곳 태백은 산촌 부락이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땀감으로 많은 나무들을 무분별하게 벌목하였으며 또 1926년 석탄이 발견되고 본격적 개발이 시작되면서부터 광산에 탄을 캐러 가는 굴진을 하려면 탄광이 무너지지 않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항목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태백의 인근산들은 거의 황폐화 되었지만 주목만큼은 벌목할 수 없었던 이유가 고지대의 바람으로 곧게 뻗어 자라지 않는 단점 때문에 항목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특히 1,000m이상 고지대에 분포되어 있다 보니 땀감을 구하는 주민들 또한 쉽게 벌목할 수 없는 나무였기에 지금까지 남아 있지 않았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 태백산 주목은 산허리를 품에 안고 천하를 호령하듯 태백산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태백산 탐방로 근처에 있는 주목들은 속이 비어있거나 가지가 말라 고사한 주목들이 많은데 아마도 그 이유는 자연환경의 오염이나 태풍, 또는 탐방객들의 잦은 발길에 주목 뿌리 부분의 토사가 유출되면서 뿌리가 차츰 말라 고사한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태백산 국립공원에서는 생태계조사단을 투입시켜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 주목들은 앞으로 더욱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 참으로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겨울 하면 그 어느 산에도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겨울에 미세한 물방울이 물체에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얼음 입자로 습도가 높고 기온이 낮은 환경에서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고산지대인 이곳 태백산의 나뭇가지 예도, 물론 주목나무 가지에도 하얗게 얼어붙어서 생긴 상고대는 보석 보다 더 아름답고 그 어떤 꽃보다 눈부시게 얼음 꽃을 피워서 지나가는 탐방객들의 발걸음을 잠시 쉬어가게 합니다.

태백산의 용정

이렇게 잠시 쉬어가며 올라 오다보니 해발 1,470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샘물. 아무리 가물어도 결코 마르지 않고, 아무리 추워도 얼지 않는다는 샘물, 우리나라 100대 명수 가운데 하나로 물맛이 좋기로 이름난 용정입니다.

샘에 용각을 짓고 용신에게 제를 올려 예부터 용정이라 불리우며 천제를 지낼 때 제수로 사용한 샘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고 귀해서 태백산이 아니면 볼 수도 마셔볼 수도 없는 용정의 샘물을 여러분에게 마셔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습니다. 그리고 이곳 까지 올라오신 보람이 있으셨기를 바라며, 지금껏 숨 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길을 후회는 없는지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백산 천제단에서.

저는 요즘 가끔씩 생각해봅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고향이라는 단어를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막연히 그림고 정든 땅이란 의미 외에도 고향은 모든걸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곳이 고향이듯, 우리 어머니들 또한 자식들의 잘못이라면 모두다 용서해주고 받아 주듯이 우리 태백산이야말로 어머니처럼 포근하고 고향처럼 다시 찾아오고 싶은 그리운 산으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소중한 자연의 자원 보물들을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우리들 생활 속에서라도 작게나마 환경오염을 줄 일수 있도록 실천하는 생활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탐방을 통해 자연생태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또 좋은 인연으로 만나길 꼭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태백산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임여영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